# 호사유피 인사유명, 그럼 나는 뭘 남기나

## (빌3:12~16)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호사유피 인사유명, 그럼 나는 뭘 남기나?>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럼 나는 뭘 남기나?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원고를 마무리하기 위해 컴퓨터를 켭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뉴스 타이틀로 '김연아 올림픽 2연패 좌절, 심판의 편파판정' 이런 구절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은메달을 딴 모양이에요.
그런데 올림픽 2연패에 관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매번 따라다니는 이름을 저도 기억합니다.
올림픽 2연패 도전이 세 번째라고 하는데, 마지막 2연패를 한 사람이 1984, 1988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동독의 카타리나 비트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과 연관 지어서 함께 생각해보면, 카타리나 비트나 김연아, 이 이름은 이미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특별히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분야의 사람들에게는 김연아 선수가 비록 은메달을 땄지만 이미 전설이라는 말이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24살밖에 안 됐는데 이름을 남겼어요.
위인들이 있고 영웅들이 있습니다, 다 이름을 남기신 분들 아닙니까?
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고인이 되신지 얼마 안 되는 하용조 목사님, 옥한음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들 다 이름을 남기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틀림없이 이름을 남기실 분들이지요.
제가 종사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빌게이츠 이건희 씨,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이름이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분야별로 이름을 남긴 분들이 따로 또 있겠지요.

우리같이 별 볼 일없는 보통사람은 뭘 남기고 죽어야 됩니까?
좀 한심하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좀 허탄한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남길 게 없어요.
기껏 내 자식이나, 그것도 2대 3대 증손 고손 갈 때까지도 내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제가 고조할아버지 이름을 겨우 기억하고 있는데 할머니 이름도 잘 몰라요.
그러니 참 링컨이나 칭기즈칸이나 나폴레옹 에디슨,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도 남겨야 됩니다.
뭘 남겨야 됩니까?
우리는 소망을 남깁니다.
이 소망을 남긴다는 말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망은 성취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남기는 것은 오늘 성경본문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소망했다는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그것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취된 것도 아니고, 소망했다는 것을 남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하나 하면, 하늘에서 죽은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을 평가할 때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름이 왜 남겨집니까?
김연아 선수처럼 카타리나 비트처럼, 에디슨처럼 알렉산더처럼, 이 세상에서 이룬 업적이나 성취가 괄목할만한 무엇인가가 있을 때 이름이 남겨집니다.
그러므로 죽은 시점을 볼 때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서 이름이 남기도 하고

이름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만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천국에서도 평가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도 천군천사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만 동시대인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과 중국에만 살아있는 동시대인들이 함께 호흡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도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똑같이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 땅에 살면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천국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얼마나 깊게 얼마나 많이 소망했는가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은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루어질 수도 만져질 수도 없는 천국을 얼마나 강하게 소망을 했느냐로 그 사람의 일생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가치 있는 삶이냐 아니냐 라는 것을.

그러니까 알렉산더대왕이 대단하지만, 사는 동안에 여호와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 목수로 자라시다가 공생애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알렉산더대왕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더대왕의 일평생의 가치를 제로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대단할 수가 없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말한 것들을 기억합니다.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실력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 그것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걸 깨닫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건희 씨, 그분의 능력이 굉장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삼성이 그렇게 이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세상에서 소망할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그것들을 다 제쳐두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천국을 소망한 것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이게 왜 대단합니까?
그 사람 속에서는 이 세상 전체를 다 이겨버린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사람 속에서는 천국이 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천국이 세상을 이긴 것이기 때문에, 알렉산더나 칭기즈칸 광개토대왕이 아무리 영토를 확장했어도 지구 자체를 이겨버린 사람을 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을 소망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도 않을 소망에 가득 차서 사는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예수그리스도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내가 푯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내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이 아니고 어제의 본문이었던 11절에 '내가 어떡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소망은 부활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 몸 말고, 나라는 인격이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하늘에서 아버지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으니까 이 삶도 자연히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잡힌바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바울을 붙잡은 궁극적인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는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소망을 갖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의 삶의 여정 중에 있는 과정으로서의 일이지, 그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붙잡으신 게 나를 써먹기나 하시려고 붙잡으신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데려가실 때까지 나는 소망하는지 안 소망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소망만 할 수는 없으니까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궁극적 사명과 소망이 꼭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게 뭐냐 하면, 신령한 몸을 입히셔서 영원히 아버지와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나를 붙잡으신 거예요.

사도바울을 붙잡았고 열두 사도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는 이 소망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어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사전을 찾아보면, '무엇인가를 바란다'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어요.
바란다, 바라는 것, 바라는 대상을 소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너무 밋밋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사전에 나와 있지 않는 말로 보충하면서 그 의미를 살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소망이 뭐냐?
내가 마음으로 진짜 좋아하는 것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중요하나를 우리가 알려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와 그 특징적인 면모를 탁 체득해야 됩니다.
근데 그 특징적인 면모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무엇을 바란다는 것보다 더 강하게 특징을 규정해주는 말이 마음으로 좋아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당연한 걸로 여기고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을 바란다고 해서 마음으로 좋아한다는 구절을 빼버리고 사전은 무엇인가를 바란다, 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소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요.

진짜 좋아하는 것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말의 정의로부터 나오는 소망의 가장 특징적인 면이 뭐냐 하면, 소망은 시간적으로 지연될 수가 없습니다, 연기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유보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한다는 것은 유보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소망하고 지금 바라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진짜 소망인 것이지, 진짜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은 바라지 않고 있다가 1년 뒤에나 바라기 시작한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도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두 연인이 있어요.
그런데 애인이 회사에서 미국으로 1년 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피치 못하게 1년 동안 헤어지게 됩니다.
공항에서 여자가 펑펑 웁니다, 남자가 게이트로 들어가고 나자 만약에 이랬다 합시다.
눈물이 싹 걷히고 수첩에 1년 뒤에 만날 날짜를 기록해놓고 그 동안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1년 후 수첩을 보니 내일 애인이 돌아옵니다.
그 메모를 보면서 다시금 애인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고 애인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그런 애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연인관계가 아니죠, 연인인 척 했던 거지, 만약 그럴 수 있었다면.
게이트로 들어가서 눈에 안 보이자마자 보고 싶습니다.
1년 동안 내내 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1년 뒤라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1년이라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도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만난다는 게 불가능한데도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간절히 보고 싶어요.
지금 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가서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라는 겁니다.
1년 내내 한 달 30일, 1주일 7일, 하루 24시간을 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연인이에요.
이게 애인에 대한 마음이고 이게 소망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천국으로 갈 소망을 갖고 산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의 소망은 내일 돈 버는 것, 5년 뒤에 내 자식이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입니다, 10년 뒤에 내가 큰 아파트로 바꾸는 거예요, 내년쯤에는 외제차 한 대 사는 겁니다.
내년쯤에는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는 겁니다.
진짜 좋아하는 걸 소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진짜 좋아하는 걸 바라게 돼있어요.
그리고 이 소망은 연기될 수가 없어요, 유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다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오늘 지금 여기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천국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 마지못해서,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와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죽어가는 순간에 천국을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천국을 소망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게이트로 들어간 애인, 1년 뒤에나 봐요, 1년 뒤에나 본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부터 보고 싶어요.
천국,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일지 몰라요.
그게 백년 뒤인지 이백 년 뒤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진짜 좋아한다면 지금부터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부터 보고 싶어야 천국을 소망하는 거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진짜 천국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알았어요, 베드로도 알았고.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변화하신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접하기 전까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소망은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얼마나 원대합니까? 남자의 기상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 민족을 독립시키고 모든 민족 위에 으뜸가는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프로젝트에 동참하면서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만 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계실 때에 있을 법한 그런 빛의 모습으로 접하자마자 이 세상에서의 그 위대하고 원대한 소망과 꿈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살자고 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그 상황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도바울이 이걸 느낀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주님,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를 진짜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가 행한 모든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가치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회심한 뒤에 지금 로마감옥에 갇히기까지 지금 사도바울의 사역의 기간이 마무리져가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은 어차피 성령님께서 자기를 붙잡아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서 이루어진 일이므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고, 내 인생의 평가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느냐 쳐다보지도 않고 내 관심은 오직 천국에서 아버지하나님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있을 것이고 난 그 사람들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산 겁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진짜 사도바울이 하나님을 좋아했구나, 진짜 사도바울이 천국을 좋아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죽은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아직 재림을 안 하셨어요.
그러나 2000년 전의 사도바울은 지금 보고 싶다고 하면서 천국을 산 거예요, 지금 보고 싶다

고 하면서.

소망, 소망, 말은 잘해요, 소망교회까지 생겼어요.
근데 뭘 소망한다는 겁니까?
진짜 좋아하는 걸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타고날 때 머리가 좋다, 제가 잘나서 된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희 씨가 경영을 잘해서 삼성이 이끌려져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희 씨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아무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것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사람이 지금 천국을 보고 싶어 하고, 지금 천국에 계신 하늘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제쳐놓고 천국을 바라는 것, 그 사람이 지구를 이겨버리는 것, 이것을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내가 이 땅에서 이룬 것 아무것도 내 인생의 업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무조건 지금 부활해서 천국에서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 살 그날만을 향해서 가고 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위에서 너 올라와서 같이 살자고 부르시는 그 상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아! 사도바울이 보고 싶어요.
주님이 보고 싶고 하늘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사도바울은 어쩌면 이렇게 그 하늘아버지와 주님을 보고 싶어 하고 진짜 좋아하셨을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이분을 꼭 부활해서 보고 싶어요.

우리 모두 진짜 천국을 좋아하면서 사도바울 같은 소망에 찬 사람으로 살다 죽읍시다.
천국을 소망하다가 죽읍시다.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 붙잡고, 자꾸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고, 그럼으로써 그 관점으로 세상에서 이룬 것들을 대단하게 여기는 이 마음,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죽음으로써 내 마음을 계속해서 하늘의 푯대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재촉하는 것만

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소망에 차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분야마다 위대한 사람들 그리고 인류에게 기억될 위인들은 이름을 남기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천국을 진짜 좋아해서 소망하며 살았다는 흔적만을 남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